

밋소웅 댐 건설을 둘러싼 미얀마-중국 관계의 변화

조흥국

미얀마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은 2011년 9월 말에 밋소웅(Myitsone) 댐 건설을 2015년까지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밋소웅 댐 건설 프로젝트는 미얀마 정부의 산업부(Industry Ministry)와 미얀마의 아시아 월드(Asia World), 그리고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中國電力投資集團公司), 즉 CPI(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간의 합작 사업이다. Asia World는 미얀마의 최대 재벌그룹으로 공업개발, 건설, 운송, 수출입, 슈퍼마켓 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의 약 반은 Asia World의 계열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밋소웅 댐은 미얀마 북단(北端)의 까친(Kachin)주를 관통하는 에야워디(Ayeyarwady) 강의 지류들인 말리카(Malihka)강과 마이카(Mayhka)강의 합류점에 총 36억 달러의 공사 비용으로 건설하려는 수력발전 댐으로, 3,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로 중국 원난성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의 기초 부분이 추진되어 그동안 댐 건설 지역의 약 60개 마을에서 15,000명 가량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했다.



밋소웅 댐 건설은 환경운동가들과 미얀마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아웅산 수지(Aung San Sukyi) 여사도 반대 운동에 참가하여 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36억 달러를 들여 생산되는 전력이 대부분 중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의 혜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가들은 밋

소웅 댐이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인 에야워디 강의 생태시스템에 “회복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2011년 9월 30일 미얀마 의회에서 댐 건설을 중지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것이 “국민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중국 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이 결정은 미얀마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그동안 서방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민주화와 경제제재 조치의 압박에서 미얀마 군부

정권의 바람막이가 되어준 중국에 대한 “보기도문 행보”로 평가되었다. 일각에서는 테인 세인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웅산 수지의 반대시위 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제 사회는 테인 세인 대통령의 2011년 9월 결정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에 들어서서 갑자기 미얀마 정부와 중국의 CPI가 밋소웅 수력발전 댐 건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댐 건설 재개를 위한 요구는 중국 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CPI 회장인 뤼치저우(Lu Qizhou)는 댐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우려들이 불식되면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댐 건설이 재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 미얀마 당국은 3월 들어 댐 건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댐 건설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3월 17일까지 마을을 떠나라고 말했다. 소개(疏開) 명령은 미얀마 부통령 티하 투라 띵 아웅 민 우(Thiha Thura Tin Aung Myint Oo)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새 마을은 경작지도 없고 심지어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 이주를 거부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까친족을 대표하는 까친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와 협상하는 한편, 까친주에 점점 더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다.

중국과 미얀마는 2012년 6월 13일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최근 서방국가들이 민주적 개혁조치들이 추진되는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보이자 그에 대해 중국이 취한 대응의 하나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밋소웅 댐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무부장관 양제츠(Yang Jiechi)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미얀마 외무부장관 운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에게 중국이 두 나라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와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위해 미얀마가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들을 원만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AsiaNews, 2011/9/30; AsiaNews, 2012/3/12; The Cambodian Daily, 2012/6/15]